

하나님의 은혜

II. 용서하시는 은혜

말씀: 롬5:20

요절: 롬5:20

성경에는 매우 독특한 한 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롬5:20)란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저주가 넘치고, 정죄가 넘치고, 심판이 넘치고, 멸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기만 한 말씀입니다.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죄의 용서는 값없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조건 없는 사면’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공훈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자신의 몸을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죄의 종결이요, 사망의 종결이요, 저주의 종결이요, 심판의 종결이요, 율법의 종결이며, 우리 육신이 끝장난 곳입니다. 동시에 은혜의 시작이요, 생명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It is finished)고 말씀하신 순간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 외에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다면 나는 그냥 받으면 됩니다. 전에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아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하고 계속 식사를 했습니다. 나 갈 때가 되어도 주인이 계산서를 청구하지 않아서 불렀더니 이미 누가 나의 밥 값을 다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가 지불했는지 압니다. 주인은 나에게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가 모든 값을 다 치렀는데 내게 무엇을 요구한다면 그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식당 주인에게 밥 값을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불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값이 모두 지불되었는데 뭘 좀 더 지불하려 하거나 다른 무엇을 해야 하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바보입니다.

It's finished/다 이루어다(요19:30). It'd done/다 이루어졌도다(계16:17, 21:6). 은혜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주어집니다. 다 이루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정죄,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속죄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행위나 노력 없이, 아무 공로나 의로움 없이, 아무 선함이나 거룩함 없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代贖)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엡1:7).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代贖)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골1:14).

선물을 받는 이들은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반면 선물을 주는 이는 미리 선물을 준비하고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이 생일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해도 그 만큼 일을 하고 돈이 듭니다. 시간이 듭니다. 받는 이는 값없이 받지만 주는 이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움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한 대속’이란 말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치른 값, 은혜의 값이 바로 ‘주님의 피’에 있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기**’(히 9:22)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다루는 방법은 **첫째, 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이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을 가렸습니다(창3:7). 몸을 가린다고 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로 먼지를 닦아 내 버리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 낼 수 없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떤 잉크나 물감으로 쓴 것은 기름으로 지울 수 있고, 어떤 것은 알코올로 쉽게 지워지고, 어떤 것은 벤젠을 사용하면 지워집니다. 어떤 것은 소다로 지워집니다. 우리는 항상 비누를 써서 몸을 씻습니다. 하지만 죄는 그런 것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네가 천연소대로 네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렘2:22). 사람들은 죄를 없애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 보지만 그런 것으로 죄로부터 깨끗해 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범하자마자 곧 바로 숨어 버렸습니다(창3:8).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시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3:10). 죄에는 수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식, 죄책감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한 일은 가리고 숨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읊은 후에 말하기를, **[혹시 내가 언제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죄들을 덮어두었던가.]**(욥31:33)라고 말합니다. 죄를 숨기고 덮어두는 것이 아담이 죄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기 위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 보내어 교묘하게 죽였습니다. 그 때에 다윗은 ‘하루 종일 신음하므로 자신의 뼈가 쇠하였다, 자신의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다’(시32:2-3)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후에 고백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들이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시69:5)라고 했습니다. 가리고 숨기는 것은 죄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이 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둘째, 비난입니다. 이는 죄의 원인은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담은 이브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창3:12). 여자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뱀이 나를 속이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3:13)라고 했습니다. 비난, 변명은 사람들이 죄를 대하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지만 일단 그렇게 합니다. 법정에서 가면 귀책사유를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때로 혼자 다 덮어 쓰는 ‘의리파’들이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이혼 법정에 가면 이들이 한 때 부부였던가? 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방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죄를 다루는 법에 대해 그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비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다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근거로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느9:17b)고 한 대로 주님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주께 용서를 청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몇 구절을 찾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32,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엡4:32).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은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용서해 주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용서와 화해에 꼭 엄한 조건을 달아 버립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전까지는... 와서 살살 빌어도 안 된다. 충분히 배상을 해 주면 모를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면... 이런 식의 조건을 달고 자기 마음의 분노가 풀려야만 비로소 용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아무 조건없이 하루에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바로 그렇게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베푸는 은혜에는 제한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무제한 무조건입니다.

골로새서 1:14,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代贖)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골1:4). 우리는 이미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앞으로 하는 행동을 봐 가면서 용서를 해 주실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있는 그곳에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시85:2).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시86:5).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님이 믿는 이들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때로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주님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를 반복해서 간청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한 번 고백한 죄를 또 회개하고, 회개한 죄를 또 고백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속에 죄 사함의 느낌이나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사면의 자유나 평안, 안식, 기쁨, 즐거움 등이 전혀 없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고 싶은 나머지 짜릿한 느낌, 뜨거운 감정, 주체 못할 흥분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나의 죄가 완전히 용서 받은 것을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죄 사함 즉 사면(용서)의 근거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반복적으로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평생 교인으로 살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매주 교회를 나오고 여러 가지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사면의 근거는 주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 받은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용서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흘린 피를 통해서' 된 것입니다. 주님이 흘린 피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용서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증서'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용서한 죄들을 반복해서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일은 불신일 뿐입니다.

골로새서 2:13, [또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고](골2:13).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죄는 평생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용서는 단번에 완전히 끝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네 범죄들을 지워 버리는 자니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사43:25).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이 지워 버린 죄악들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의식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요, '불신'입니다.

요한일서 2:12,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용서되었음이요,](요일2:12). 사도 요한은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었음을 기록하고 알려 줍니다.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용서되었음이요"-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인해 용서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 ▶ 용서되었다(요일2:12).
- ▶ 깨끗하게 되었다(히9:14).
- ▶ 제거되었다(요1:29).
- ▶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롬6:14).
- ▶ 가려졌다(롬4:7).
- ▶ 씻음 받았다(계1:5).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적 사실,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을 때 평안, 기쁨, 자유, 안식, 놀라움, 즐거움이 임합니다. 믿을 때 열매가 맺힙니다. 순서는 사실-믿음-감정입니다. 나의 죄가 너무 많다, 죄가 너무 크다, 죄가 너무 중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생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데...하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롬5:20). 죄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넘치면 넘칠수록 그에 상응하는 은혜가 더욱더 넘칩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주님의 피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의 피가 필요하고 그 피가 그 죄를 제거해 버립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는 죄를 씻고, 제거하고, 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항상 자신의 피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음이니라.](롬5:15b).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믿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죄를 다루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크리스천이 된 후 반복해서 죄를 짓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란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죄 없는 성결한 삶, 거룩을 추구하면 살지만 죄와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마귀들은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죄 없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죄에 연루되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정결하게 씻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 자백하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죄들을 숨기지 마십시오. 자백은 말 그대로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은 요청(ask)이 아닙니다. 자백은 간구가 아닙니다. 자백은 변명이 아닙니다. 자백은 입술로 시인하고 그 사실을 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 나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점에서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고백하리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시인하며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시32:5). 주님 앞에서 솔직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고백하는 일이야말로 용서의 조건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행동하지 못하나 누구든지 죄들을 시인하고 버리는 자는 공활을 얻으리라.](잠28:13).

2. 주님의 성품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뒤엎어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너의 죄는 너무 커서 자백만으로는 안 된다.’, ‘너의 자백은 무효다.’, ‘너의 자백은 내가 받을 수 없다.’ 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어기는 분이려면 ‘불의’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기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며,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용서해 주시고, 어떤 것은 보류하시고, 어떤 것은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3. 주님의 용서를 받아 들이십시오. [...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b). 죄를 자백했으면 그 뒤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크리스천의 비극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 여전히 죄책감, 죄의 속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빛을 다 갠 후에도 빗쟁이의 공포에 시달리는 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죄사함의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내가 용서 받을만한 공로나 업적이나 선행이나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주의 이름, 주의 피, 주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얻는 것입니다.